

죽음준비교육이 간호학생들의 생의 의미, 죽음과 웰다잉,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변도화¹, 박미현^{2*}

¹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²포항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about the Meaning of Life, Death and Well-dying and Hospice

Do-Hwa Byeon, Mi-Hyeon Park^{2*}

¹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Poh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생의 의미, 죽음과 웰다잉,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A시의 C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8명을 실험군으로, P시의 P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6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2016년 2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 1회 90분씩 8회기에 걸쳐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은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교육의 중심적인 4가지 영역인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가치 영역의 구분에 맞추어 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과 웰다잉,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두면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죽음준비교육은 간호학생들의 생의 의미, 웰다잉 인식,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학생들 자신의 생이라는 의미 부여와 함께 올바른 삶의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웰다잉과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돕는 유용한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죽음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죽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 연구와 적용기간에 따라 웰다잉 인식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a non-equal prior and post quasi-experimental research on a control group, investigates the nursing students' change of perception on the meaning of life, death, well-dying and hospice in order to elucidate its effect. The study subjects were 38 students register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in C University located in A city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another 36 students register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in P University in P city as the control group. Death preparation education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9 through April 20, 2016. A 90-minute session was conducted each week for eight weeks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χ^2 -test and t-test. In line with four domains of death education, i.e., cognition, emotion, practice and value, death preparation education was composed by imparting meaning to life and focusing on the perception on death, well-dying and hospice. From the study results, death preparation education enhanced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n the meaning of life, well-dying and hospice, and hence helped nursing students grant meaning to their lives and establish right values of life. Thus, it acted as a driving force for nursing students to live positive lives and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useful education which cultivates right perception on well-dying and hospice. However, in the absence of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death, repeated follow-up studies are required to verify the effect on the perception on death and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well-dying depending on the period of application.

Keywords : Death, Hospice Care, Life, Nursing, Perception,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Mi-Hyeon Park(Pohang Univ.)

Tel: +82-54-245-1321 email: pmh0124@daum.net

Received January 23, 2017

Revised (1st March 15, 2017, 2nd March 30, 2017)

Accepted May 12, 2017

Published May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보편적인 문제이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절박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관하여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1].

특히 대학생들이 속하는 청년 집단은 평소 죽음에 대한 주제에 대해 모른 척 살아간다. 즉 자신의 인생에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고, 찰나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언제 겪을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2].

그러나 언젠가는 이들 역시 잠재적 암환자나 가족 또는 미래의 호스피스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부터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3].

죽음준비교육은 인간으로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삶을 바르고 성실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는 삶을 위한 교육이다[4].

죽음준비교육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면[4] 더욱이 환자를 간호해야 할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를 접하거나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들을 간호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죽음준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5].

간호대학생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없이 환자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6]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끼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7] 임상실습에 앞서 자신의 생에 대한 의미를 성찰함과 동시에[6] 죽음과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을 수용하고 임종환자와 가족에게 긍정적인 돌봄의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적인 준비가 강조되고 있다[8].

그러므로 죽음준비교육을 간호대학의 교과과정 안에 필수적으로 편성을 하여 간호학생들의 올바른 죽음관을 형성하고 현재 삶의 가치와 자아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인간 존재와 생의 의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소유하여[7] 긍정적인 간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9].

그러나 간호대학에서 죽음 관련 교육은 대부분 노인 간호 교과과정으로 일부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

고 간호대학생들의 죽음교육 요구도가 91.7%로 죽음교육의 필요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위한 죽음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6].

물질문명과 외적 가치에 치우쳐서 내면의 세계를 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생명의 소중함이나 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준비교육은 간호학생들에게 소중한 생명과 생의 의미를 부여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4].

간호사는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돌보는 태도와 간호수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10] 죽음과 임종과정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죽음의식을 정립해야 한다[11]. 뿐 만 아니라 말기 환자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여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도록 돕기 위한 임종간호수행 능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함으로 간호학생시기에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12].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을 배움으로 현재의 삶만 보던 시야를 벗어나 자신의 삶을 넓은 안목으로 보게 되는[4] 계기로 제공될 수 있으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의미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감소시키는 물론, 죽음교육을 통하여 죽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봄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13].

최근 죽음준비교육이 다양한 대상,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 검증 연구가 진행되었으나[1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죽음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죽음 관련 교육 경험과 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15],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과 자살에 대한 태도,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1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 불안정도와 임종 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17], 생의 의미, 죽음 불안정도와 임종 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18]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임종 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근원이 되는 생의 의미, 죽음과 웰다잉의 인식,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을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생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죽음과 웰다잉, 호스피스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식

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효과를 검증하여 긍정적인 죽음관과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죽음준비교육이 간호학생들의 생의 의미, 죽음과 웰다잉의 인식,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의 생의 의미와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생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죽음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과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생의 의미, 죽음과 웰다잉의 인식과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유사 실험 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A시에 소재한 C대학교 P시의 P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 중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3학년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다음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에 대한 차이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된 각 집단별 표본 수

의 결정은 independent t-test에 필요한 효과크기 검증력 $(1-\beta)=.90$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시에 간호대학생에 대한 웰다잉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Moon 등[19], 죽음준비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을 시행한 선행연구 Kim[14]을 참고하여 두 연구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본 중재의 효과크기를 .80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G Power 3.1 프로그램(t-test)을 이용하여 두 집단간 유의 수준과 통계적 검정력을 .05와 .80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 요구되는 대상자의 수는 각 군당 34명이었으나 10-15%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A시에 있는 C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40명을 실험군으로 하였으며, 실험군과 교류가 없는 P지역에 있는 P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40명을 대조군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실험군에서는 질병 등으로 8회기의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2명이 제외되었고, 대조군에서는 4명이 사후 조사에 응하지 않아 제외되어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는 실험군 38명, 대조군 36명 총 74명이었다.

2.3 죽음준비교육

본 연구의 죽음준비교육은 Corr 등[20]의 죽음교육의 중심적인 4가지 영역인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가치 영역의 구분에 맞추어 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과 웰다잉,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에 중점을 두면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토론하고, 웰다잉의 의미, 호스피스의 대한 의미 탐색을 주 교육 내용으로 하였고, 정의적 영역에서는 개인적인 사별 경험, 상실과 슬픔에 관한 반응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표현되는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천적 영역에서는 버킷리스트와 유언장 작성 등 자신의 죽음 준비, 자신의 장례식 초대장 만들기 등 자신의 장례식 준비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치 영역에서는 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관 탐색을 주 교육내용으로 하였다. 죽음준비교육은 8주 동안 주 1회, 매회 90분씩 8회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1회기는 죽음의 의미와 죽어가는 사람의 욕구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죽음과 죽음의 단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죽음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죽음을 생각한 후 타인의 죽음을 간접 경험하고 토론을 통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였다. 2회기는 웰다잉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명명치료와 윤리적 딜레마를 다

루었다. 3회기는 호스피스 간호 인식을 돕기 위해 임종 과정의 생리적 변화와 증상 관리 등을 다루었다. 4회기는 개인적인 사별 경험, 상실과 슬픔에 관한 감정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 상실과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5회기에서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6회기에서는 자신의 유언장과 묘비명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죽음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7회기에서는 장례문화와 제례에 대해 알고 자신의 장례식을 그려보도록 하여 자신의 장례식 준비를 해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8회기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대한 가치를 탐색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발표하고 정리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생의 의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의 의미 측정도구는 Kim 등 [16]이 개발한 생의 의미 측정도구(MIL II)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의 9문항, 창조적 가치 실현의 15문항, 경험적 가치 실현의 10문항,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의 12문항으로 구성된 총 46문항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0.9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0$ 이었다.

2.4.2 죽음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죽음에 대한 인식의 측정도구는 Inumiya[21]가 개발한 사생관 척도를 Cha[22]가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총 36문항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0.79$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74$ 이었다.

2.4.3 웰다잉 인식

웰다잉 인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도구로 Schwartz, Major, Rogers, Yunshen과 Reed등[23]이 개발하고 Jeong[24]이 번안한 17문항을 Song[25]이 호스피스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개발한 4문항을 더한 총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Schwartz 등 [23]이 개발하였을 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7$ 이었고, Jeong[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2$, Song[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67$ 이었다.

2.4.4 호스피스 인식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26]과 Lee[27]의 호스피스 인식의 측정도구를 Kim[28]이 수정 보완한 '호스피스 정의와 철학' 4문항, '호스피스 대상자' 2문항,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8문항, '통증과 증상 조절의 필요성' 2문항, '호스피스 윤리 및 심리' 4문항,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2문항의 총 22문항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Kim[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70$ 이었다.

2.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2월 29일부터 2016년 4월 20일까지 이었으며, 사전조사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에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절차, 연구 참여함에 있어 동의와 거부에 대한 내용, 익명의 비밀보장, 연구 참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측정하였다. 사후조사는 8회기의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측정하였고, 대조군도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인식, 웰다잉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차이 검증인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Homogeneit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38)	Control group(n=36)	t or χ^2	p
		n(or M)(%, SD)	n(or M)(%,SD)		
Age(yrs)		22.57(1.3)	22.97(1.4)	-1.287	.202
Sex	Male	8(21.1)	10(27.8)	.454	.500
	Female	30(78.9)	26(72.2)		
Religion	Yes	16(42.1)	13(36.1)	.279	.598
	No	22(57.9)	23(63.9)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8(21.1)	5(13.9)	2.000	.368
	Moderate	28(73.7)	26(72.2)		
	Good	2(5.3)	5(13.9)		
Money allowance	>200,000원	7(18.4)	12(33.3)	2.504	.286
	210,000원-290,000원	18(47.4)	12(33.3)		
	<300,000원	13(34.2)	12(33.3)		
Health condition	Moderate	13(34.2)	17(47.2)	1.539	.463
	Healthy	20(52.6)	14(38.9)		
	Very healthy	5(13.2)	5(13.9)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나이는 22세이었고, 실험군에서 여학생은 30명(78.9%), 대조군은 26명(72.2%)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실험군에서 22명(57.9%), 대조군에서는 23명(63.9%)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수준은 실험군에서 28명(73.7%), 대조군에서 26명(72.2%)이 보통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용돈은 실험군에서 18명(47.4%)이 21만 원에서 29만원 사이의 용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은 20만원 미만이 12명(33.3%), 21만원에서 29만원 12명(33.3%), 30만원 이상 12명(33.3%)으로 골고루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실험군에서 20명(52.6%)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대조군에서는 17명(47.2%)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 성별, 종교 유무, 경제상태, 용돈 수준,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프로그램 실시 전 대상자의 생의 의미, 죽음인식, 웰다잉 인식, 호스피스 인식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 실시 전 동질성 검증에서 생의 의미는 실험군에서 2.84점, 대조군에서 2.86점으로 나타나 차이가 없었으며, 죽음의 인식도 실험군 3.22점, 대조군 3.21점으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웰다잉 인식은 실험군은 3.31 점, 대조군은 3.42점으로 차이가 없었고, 호스피스 인식에서도 실험군 2.95점, 대조군 2.93점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어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74)

Variables	group	n	M±SD	t	p
Meaning in life	Experimental group	38	2.84±.15	-.608	.545
	Control group	36	2.86±.16		
Death recognition	Experimental group	38	3.22±.26	.118	.907
	Control group	36	3.21±.37		
Well-dying perception	Experimental group	38	3.31±.29	-1.438	.155
	Control group	36	3.42±.36		
Perception on hospice care	Experimental group	38	2.95±.24	.406	.686
	Control group	36	2.93±.21		

*p<0.05

3.3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인식, 웰다잉의 인식,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의 의미(t=2.071, p<.042)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고, 죽음에 대한 인식(t=1.450, p<.151)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웰다잉 인식(t=3.083, p<.003)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으며,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t=2.374, p<.020)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지지되었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74)

Variables	group	n	Post	Post experiment-Pre experiment	t	p
			M±SD	M±SD		
Meaning in life	Experimental group	38	2.99±.21	.14±.21	2.071	.042*
	Control group	36	2.87±.28	.01±.34		
Death recognition	Experimental group	38	3.34±.33	.12±.27	1.450	.151
	Control group	36	3.24±.30	.02±.49		
Well-dying perception	Experimental group	38	3.65±.29	.33±.34	3.083	.003*
	Control group	36	3.41±.36	-.01±.39		
Perception on hospice care	Experimental group	38	3.07±.25	.12±.31	2.374	.020*
	Control group	36	2.94±.21	.01±.31		

4. 논의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을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생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죽음과 웰다잉, 호스피스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식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생의 의미가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16]의 연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1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죽음준비교육은 결국 삶의 교육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29] 효과적인 교육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은 자신의 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이라는 의미 부여와 함께 올바른 삶의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에 있어서 Moon 등[19]의 연구의 죽음에 대한 인식의 측정도구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만 측정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불안정도, 죽음에 대한 관심도, 생명존중 의지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측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을 통한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성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 연구가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웰다잉 인식은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죽음준비교육이 웰다잉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웰다잉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연명치료와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반면 Moon 등[19]의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웰다잉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험 처치 기간이 8주인데 비해 Moon 등[19]의 연구에서는 실험 처치를 3일이라는 단기간에 진행하여 측정하였으며 웰다잉의 의미를 탐색하는 구성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프로그램 적용기간에 따라 웰다잉 인식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죽음준비교육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호스피스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Tsung 등[30]의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의 학생인데 비해 Tsung 등[30]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이라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 등 다양한 각도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반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죽음준비교육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생의 의미를 깨달아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간호학생들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죽음과 웰다잉,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므로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군에서는 죽음준비교육 후 점수가 증가하였으므로 향후에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결론적으로 죽음준비교육은 간호학생들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탐색을 통해 죽음과 웰다잉,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돕는 교육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H. C. Kim, G. S. Choi, Y. Chung, "The Influence of How-to-Die Education on the Elderly Anxiety,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toward Death",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Vol. 30, No. 3, pp. 75-84, 2005.
- [2] J. Y. Lee, "The Youths' Perception of Death and The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 19, pp. 39-56, 2004.
- [3] Y. E. Lee, E. A. Choi, K. E. Lee, "Spiritual Well-Being, Attitude to Death and Perception of Hospice Care in College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8, No. 4, pp. 294-305, 2015.
DOI: <https://doi.org/10.14475/kjhpc.2015.18.4.294>
- [4] J. Y. Lee, "The Youth's Perception of Death and the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 19, pp. 39-56, 2004.
- [5] H. J. Cho, E. S. Kim, "The Effect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on the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of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8, No. 2, pp. 163-172, 2005.
- [6] S. H. Kim, D. H. Kim,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Death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2, No. 3, pp. 277-286, 2015.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5.22.3.277>
- [7] S. N. Kim, H. J. Kim, S. O. Choi, "Effects of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Meaning in Life on Attitudes Toward End-of-Life Care and Meaning in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454-463,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454>
- [8] K. H. Kang, K. D. Kim, H. S. Byun, B. Y. Chung, "Spiritual Well-Being, Self Esteem, and Attitude to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sian Oncology Nursing*, Vol. 10, No. 1, pp. 1-9, 2010.
- [9] E. H. Kim, E. J. Lee,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Nursing*, Vol. 39, No. 1, pp. 1-9, 2009.
DOI: <https://doi.org/10.4040/jkan.2009.39.1.1>
- [10] J. H. Youn, J. Y. Ha, "Nurses' Awareness of Death and Meaning of Life",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0, No. 4, pp. 381-388, 2013.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3.20.4.381>
- [11] S. J. Kim, H. M. Sa, S. K. Son, H. J. Song, E. J. Yu, M. K. Yoon, J. S. Chung, S. H. Han, M. H. Hwang, H. Y. Hwang, "A Study on Attitudes of Nursing Student toward Death related to Death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of Ewha*, No. 44, pp. 83-96, 2010.
- [1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National Cancer Center. 2012 Hospice & palliative care guideline for palliative care team member. Seoul, 2012.
- [13] M. O. Yoon, "Effect of a Death Preparing Education Program on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Life in Volunteer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2, No. 4, pp. 199-208, 2009.
- [14] S. H. Kim, "A Meta Analysis of Effectiveness of Death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8, No. 3, pp. 196-207, 2015.
DOI: <https://doi.org/10.14475/kjhpc.2015.18.3.196>
- [15] S. H. Kim, D. H. Kim,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Death, Death-related Education Experience and Education Need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405-413,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405>
- [16] S. N. Kim, S. O. Choi, J. J. Lee, K. L. Shin, "Effects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Attitude to Death and Meaning in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2, No. 2, pp. 141-153, 2005.
- [17] H. J. Cho, E. S. Kim, "The Effect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on the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of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8, No. 2, pp. 163-172, 2005.
- [18] E. J. Shin, "Influence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on Meaning in Life, Death Anxiety and Attitude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22, No. 3, pp. 65-74, 2011.
DOI: <https://doi.org/10.7231/jon.2011.22.3.065>

- [19] H. J. Moon, S. K. Cha, S. W. Jung, "Effects of a Well-dying Program o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8, No. 3, pp. 188-195, 2015.
DOI: <https://doi.org/10.14475/kjhpc.2015.18.3.188>
- [20] C. A. Corr, D. M. Corr. "Death & Dying, Life & Living (7th ed). Belmont, CA: Wadsworth. 2013.
- [21] Inumiya, Yoshiyuki, "A study on development of a view of life and death scale and relationships among its elements", Korea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2002.
- [22] Y. R. Cha, "A Study on the Nurses' Attitude to Death in Korea : Centering on University Hospital in Jeollabuckdo Province", Wonkw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ksan, 2005.
- [23] C. E. Schwartz, K. Major, J. Rogers, MA. Yunshen, & G. Reed.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Vol. 6, No. 4, pp. 575-584. 2003.
DOI: <https://doi.org/10.1089/109662103768253687>
- [24] H. S. Jeong, "Recognition towards Good death among Physicians and Nurses in an area",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2009.
- [25] S. H. Song, "Recognition of preparation for death and well-dying of Won-Buddhist", Hany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2010.
- [26] J. H. Kim, "A Study on the Attitudes of Medical Person on Death and Hospice", Hany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1990.
- [27] E. J. Lee, "A Study of Spot-Survey towards the Attitude of Hospice", Wonkw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ksan, 1998.
- [28] M. S. Kim, "Comparison on the Perception about Hospice and the Meaning of Life of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the Hospice Volunteer Education Progra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2007.
- [29] E. M. Hyun,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220-4228,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7.4220>
- [30] P. L. Tsung, Y. J. Lee, S. Y. Kim, S. K. Kim, S. A. Kim, H. J. Kim, Y. Nam, S. Y. Ham, K. A. Kang, "Effec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Awareness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n City Dweller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8, No. 3, pp. 227-234, 2015.
DOI: <https://doi.org/10.14475/kjhpc.2015.18.3.227>

변도화(Do-Hwa Byeon)

[정회원]



- 2009년 2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간호마케팅

박미현(Mi-Hyeon Park)

[정회원]



- 2008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5년 8월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4년 9월 ~ 현재 :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노인간호, 치매 가족 교육